

기관탐방

한국은행 부속의원 건강관리실



오명희 / 한국은행 부속의원

앙칼진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던 날... 담장에 넝쿨진 개나리가 꽃망울을 머금고 봄의 전령을 자초하며 눈과 가슴을 녹여주던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를 찾았다. 남대문 시장을 지나 맞은편에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물. 1950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힘써온 한국은행 정문에 들어섰다.

반 백년 오래된 역사와 함께 이십사 년째 오명희 선생님이 재직 중인 한국은행 부속의

원 건강관리실은 따사로운 봄별이 드는 7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점인원을 포함한 직원 수가 2,425명이며 현재 본점 상주인원은 1,4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은행 내에는 자력으로 보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간호사 1인, 내과의 1인, 치위생사 1인, 임상병리사 1인, 약사 1인, 방사선기사 1인이 부속의원에 근무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건관리자 오명희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에서 근무하다가 유학 준비를 위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산업장 근



무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업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창조적으로 맺혀지는 산물들. 근로자의 변화가 산업간호사의 손길에 의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결국 산업 간호에 발목이 잡혔다. 유학을 가지 못했어도 결코 후회가 없다. 지금도 오명희 선생님은 정말 바쁘다.

타 사업장과 달리 건강관리실이 부속위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 간호사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보건관리 수행에 한계가 있다. 전년도까지 전 사원 건강진단 업무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더욱 심도 있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해 일부 40세 이상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외부에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본 상부에서 금년부터는 전 사원의 건강진단을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 아마도 건강관리실 업무진행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건강진단을 4월부터 12월까지 직접 실시하고 의료보험청구 업무, 근로자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느라 휴가는 물론 커피한잔의

여유를 갖기도 어려웠으나, 금년부터는 건강관리실의 주 업무가 주변의 부수적인 일이 많이 감소되고 근로자를 면대면하여 집중 보건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력이 생길 것 같다. 드디어 오랜 기간 말없이 헌신하며 성실히 건강관리실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선생님의 업적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근로자의 업무는 주로 사무직과 현 돈을 폐기하는 업무로, 자세와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호소가 높다. 근로자들이 통증

을 극복하기위해 진통제와 같은 약물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켜 본 오명희 선생님은 테이핑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같이 근무하는 내과의와 건강관리실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담당자의 인식 변경이 달라질 즈음 정기적인 인사이동에 의해 인력이 바뀌었고, 근로자들은 부속위원의 다른 직원들을 보건관리자로 착각하거나 오해를 갖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일관되게 행했던 마음이 이심전심이었을까? 모 대학병원 원장 퇴임 후 부임한 부속위원 내과선생님에게 급격하게 발생한 통증을 테이핑요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킨 이후 간호사의 의견이라면 적극 수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내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혈압약 먹는 것도 귀찮다며 복용을 하지 않고,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와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자신을 방치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개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해 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비로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처치해주었던 테이핑 구입비

용도 이제는 의약품과는 별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결재가 가능해졌다.

건강진단이 일년 내내 계속 진행되면서 전 직원에 대한 검진결과 입력 등 단순 업무에 시간 투자가 많아지자 오명희 선생님은 과감하게 자신의 비용을 들여 아르바이트를 채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인 자신의 가치를 무언으로 증명하였다. 업무 기획 뿐 아니라 업무를 생산하여 포장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행하였다. 결국 회사에서 담당인력을 배정해주었다. 근로자를 위해서라면 '못 말리는 천성'을 갖춘 보건관리자 오명희 선생님은 업무 후 석 달 과정의 한방간호사회 교육, 2년여에 걸쳐 테이핑요법 초급·중급·고급과정을 마쳤다. 경혈자리 확인을 위해 책의 집필자 자택까지 따라가서 확인하며 독학하였다.

추후 한국은행 건강관리실에서는 보건교육과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대체요법을 접목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동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교육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가장 큰 역점을 둔 건강관리실 사업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을 가진 한국은행의 근로자들이 매일 먹는 식단을 도정되지 않는 식품과 방부제·조미료·인스턴트 음식·산화된 기름이 첨부되지 않은 유기농 재료와 천연재료를 사용한 식단으로 바꾸는 일이다. 근로자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른 먹거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존하는 일이 기초되어 근본적인 전인간

호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정년퇴직 전에 오명희 선생님이 꼭 이루고 싶은 보건관리 사업 중에 하나라고 강조한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산업 간호사들에게 산업 간호의 길은 보람과 매력이 있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한국은행 보건관리자 오명희 선생님. 팀에 소속된 구성원들과 어울려 사업장이 어려울 땐 어려운 데로 협조를 이루는 방법을 득하고, 처음부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아닌 진심어린 인간관계를 맺고 모나지 않은 건강관리실을 만들라고 조언 해 주었다. 보건관리자들이 편안한 안주 뒤에 따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앞날을 걱정하고 열악한 환경과 업무 중복을 불편하게 여기기 전에, 전문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고 상급자와 근로자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일을 창출하며 자기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도전을 발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슴을 열기를 바란다고 속내를 비쳤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는 말을 생각하며 기관탐방을 마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며 나서는 길... 지칠 줄 모르고 투자하고 자신의 역량을 끌어내는 보건관리자가 있기에 한국은행 건강관리실에 비취지는 햇빛이 더욱 찬란하게 느껴졌나 보다.

대담 : 이상희 교육부장